傘下支部動靜

▲慶南道支部

지난 1月3日 金正滿 支部長과 김정헌 울산소장 主管으로 馬山市에서 금년도 첫번째 綠生會를 개최하고 始務式겸 協會活性化를 위한 系統出荷의 적극 참여와 상부상조를 위한 紐帶를 더욱 공고히 한바 있다.

특히 이날 會議는 鎭海 강신웅소장의 예기치 않은 別世에 대한 애도분위기로 充滿하였다.

▲釜山直轄市支部

지난 1月10日 地域회원 25名이 참석한 가운데 朴吉夫支部長 主管으로 금년도 始務式겸 첫번째 綠生會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會議에서 朴支部長은 우리 會員일동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상부상조하면서 지난 한해를 대과 없이 보내게 된데 대하여 感謝한다고 말하고 금년에도 더욱더 단결하여 會勢伸張을 위해 할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우리의 權益과 위치를 지켜나가자고 強調하였다.

特히 이날 會議에서는… 앞으로 會員相互間에 지켜나가야할 別項과 같은 會員信條 4개項을 작성의 결합과 동시에 會員新規수첩의 發行과 平和의 댐 건설誠金 178,000원을 即席에서 모금 釜山KBS放送局에 헌납케하므로서, 他支部의 垂範이 되기도 하였다.

부산지부 1월 10일 회의 광경

※生藥會員의 信條

・우리는 생약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생약의 품질향상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다.

・우리는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높은 기상과 위대한 민족통일정신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우리는 선진조국 창조에 솔선수범한다.

・우리는 국민건강이 국력임을 깨달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강요법을 널리 보급하여 국민보건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江原道支部

지난 1月14日 宋寅秉支部長과 황인구 원주시소장 主管으로 原州市에서 금년도 첫번째 綠生會를 개최하고 今年度 支部運營方向을 決定함과 동시 管內生藥分野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것을 다짐한바 있다.

※87년1월1일부로 산림청이 내무부산하로 부터 농수산부로 소속변경 됨에 따라 농수산부 명칭을 농림수산부로 개칭.

※농어촌개발공사의 명칭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16일 오전 서울 漢江路3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옥에서 현판식 거행.

盆梅꽃 피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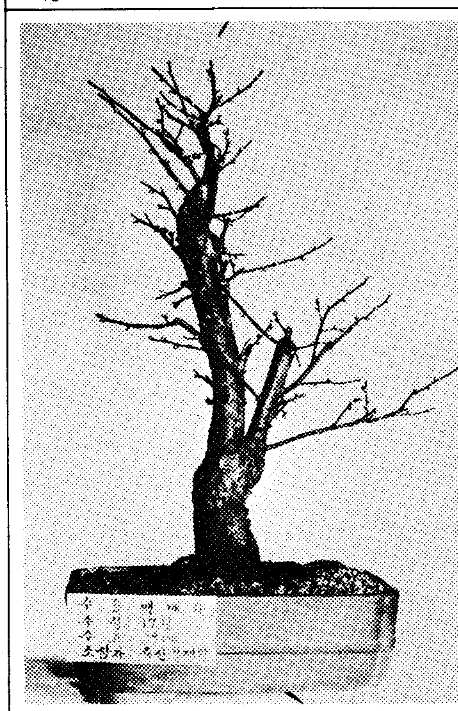
한국분재문화연구원장 안형재

안형재원장

옛부터 梅花는 文人書家들로 부터 그 淸眞함과 고결한 品性으로 因하여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中國의 宋나라 사람인 范石湖는 그의 「梅譜」序文에서 『매화가 天下에 으뜸가는 꽃』이란고 하였다.

梅花는 봄을 가장 먼저 알려 준다고 하여 「一枝春」 또는 「先春」이라고도 한다. 嚴冬에 雪寒을 이기고 百花에 앞서 홀로 꽃망울을 터트리는 雪中梅는 그 고고하고 깨끗한 자태는 보다 더 흰꽃 색갈, 맑은 향기는 가히 모든꽃 가운데 으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수 많은 詩人墨客들이 梅花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冷艶, 淸艶 또는 玉雪姿, 氷魂雪骨, 凌雪淸香等으로 形容하였고 추위를 아랑곳 하지 않은 梅花의 性質이 人間의 절개처럼 강하다 하여 貞姿勁質, 蕭疏孤節이라고 代名하기로 하였다.

또 그 脫俗한듯한 성격때문에 花仙, 玉仙, 瘤仙 姑射仙人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梅花는 위와같은 俗性때문에 흔히 절개를 지키며 隱居하는 處士(貞士)나 脫俗한듯한 아름다움을 갖춘 美人과 仙人 그리고 人格을 完成한 존재에 비유된다. 그래서 「蘇東坡」는 梅花를 신선과 같이 脫俗한 存在로 끌어 올렸고 「黃庭堅」은 매화를 「梅兄」이라 하여 깊이 사귀는 情을 드러냈는가 하면 退溪 李滉先生은 젊어서 부터 매화를 酷愛하여 매화에 대한 100여편의 詩(梅花詩帖: 한국문학사상 최초로 單一素材 自作詩集)를 남겼다. 그 詩 가운데서 退溪는 매화를 벗으로 삼아 自身의 情懷를 梅花에 하소연 하기도 하였고 主客이 되어 서로 唱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先人들은 梅花를 書室에 두고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써 마음속의 俗된 기운을 씻어내고 同時에 德性을 기르는데 一助를 기하기도 하였다.

現代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盆梅를 가까이서 즐길수 있다면 情緒의 함양은 勿論 仙人의 境地를 自踏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웃나라 日本에서는 수백여종의 매화를 원예종으로 改良하여 培養하고 있으나 本院의 附設 竹山盆栽園에서는 우리의 先人들이 즐기던 種만을 번식배양하고 있다. 梅花는 줄기가 구불구불 틀리고(龍梅) 가지가 성글고 야윈 것과 늙은 가지가 怪奇하게 생긴것을 貞貴하게 여긴다.

또한 梅花를 四貴라 하여 ①꽃은 드물게 피고 ②늙은자태 ③파리한 생김새 ④화려하지 않은 모습을 特徵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매화를 기를 때에는 반드시 줄기가 뒤틀려 오르도록 해야하고 잔가지를 많이 내지 말아야 한다. 梅花의 종류로는 백색의 꽃이 피는 백매화와 담홍색의 꽃이 피는 紅梅등이 있으며 半生半枯의 生態가 特異한 植物이기도 하다.

매화는 7~8월에 꽃눈이 형성되어 물 주기는 비교적 적게 하는것이 좋다. 보온실에 들여 놓은 매화는 벌써부터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보온실에서의 분매는 대개 1~2월에 開花하지만 성탄과 신정을 맞이하여 보다 일찍 매화를 즐기려면 차가운 곳에서 기르던 盆梅를 開花預定日 보다 10일전에 室內(안방, 居室)에 들여 놓는다. 그리고 하루에 2~3회씩 미지근한 물(5℃ 정도)로 나무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고 盆土가 마르지 않도록 1~2일에 한번씩 물을 흠뻑준다. 이렇게 하면 梅花의 꽃망울이 점점 부풀어 올라 10일후면 꽃망울을 터뜨린다. 일단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잎에 물기를 가하게 되면 꽃이 쉽게 져 버린다. 반면 분토에는 하루에 한번 정도씩 물을 흠뻑준다.

植物은 개화와 결실기에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꽃이 70% 정도 피게되면 아직 피지않은 꽃망울은 조심스럽게 따버린다. 마지막 한송이까지 꽃을 즐기려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盆樹가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따뜻한 곳에 너무 오래동안 두게 되므로 휴면을 정지하고 새싹이 돋아 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화가 지고 나면 곧 바로 다른 분재들과 같이 아파트의 베란다나 양지바른 곳에 내어 놓고 겨울 관리를 해야한다.

※분재 겨울관리 요령을 읽고나서 병충해 구제용석회 유황합제가 필요하신분들에게는 본 연구원에서 소요약제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단, 용기는 지참 바람)

〈2면에서 계속〉

도록 할 것이다.

③根腐病‥여름 장마비 올때에 排水가 잘되지 않는 土質에서 발생하는데 심할 때에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排水가 잘되는 땅에 黃 를 재배함이 필요하며 排水가 좋지 않은 땅에 재배하였을 때에는 배수에 특히 유의할 것이다。

3、收穫・調製

①收穫의 時期‥파종후 2~3年生을 수확하는 것이 보통이다。沖積土같은 肥沃한 土質에서는 당년에도 뿌리가 상당히 크므로 時勢가 좋을 때에는 수확하기도 하나 뿌리가 길고 굵지 못하여 品質이 좋지 못하며 藥效도 적다고 時勢도 2~3年生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時勢가 맞지 않을 때에는 몇 해고 더 키워서 수확할 수 있으며、오래되어 뿌리가 클수록 시세를 더 주는 것이므로 時勢에 따라서 收穫年數를 달리할 것이다。

②收穫方法‥옆 뿌리가 적고 곧게 내려간 것은 莖葉을 쥐고 힘껏 뽑으면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뽑히므로 수확하기에 勞力이 적게 들며 혹은 지렛대를 이용하여 뽑기도 한다。대개는 줄기를 베고 삽、괭이 등으로 포기옆을 파고 뿌리를 뽑는다。

③調製方法‥캔 뿌리는 물에 씻어서 대칼(竹刀) 같은 것으로 겉질을 벗기는데 勞力이 많이 들므로 돌 같은 데에 뿌리를 문질러 겉질을 벗기기도 한다。뿌리가 건조되면 겉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므로 건조되지 않게 땅에 묻어 두든가 물에 담구어 두었다가 벗기는 것이 作業上 유리하며 겉질을 벗긴 것은 멍석 같은데에 얇게 펼쳐 말리는데 될 수 있으면 短時日에 건조하는 것이 겉질이 희고 깨끗하여 品質上 좋다。반정도 건조되면 손질을 하여 한줌씩 하여 다시 말리어 8~9할 건조되었을 때에 간추려 묶어서 완전 건조하여 저장한다。

④收穫量‥10a당 收穫量은 당년생은 잘되어서 90kg 내외이고、2~3年生은 보통 180~240kg 내외의 乾根을 수확한다。

醫藥분업 89년부터 실시

政策審議기구 곧 구성 내년末까지 處方의약・賣藥분류

疾病종류따라 病・醫院 구분진료 並行실시

보사부는 26일 오는 89년부터의 전국민의료보험 확대에 맞추어 의약분업도 8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질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진료 병・의원을 구분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해 함께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상반기에 50명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분업및 의료전달체계 한방의보확대제도보완 등을 위한 정책심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李海元보사부장관은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시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의약분업 의료전달체계의 병행시행을 목표로의료및 약무행정을 통합결정하는 심의기구를 87년 설립키로했다』고 밝히고 『이심의기구에서 선진국의 각종제도를 연구토록해 우리나라실정에 맞는 제도를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木浦에서의 의약분업을 시범실시한결과 제도의 필요성과 장점등이 충분히 분석됐는데도 병원과 약국의 이해가 서로엇갈리고 의료전달체계확립도 병원과 의원의 이해가 엇갈려 지금까지 시행결정이 유보되고있다』며 『새로운 정책결정기구를 설립 88년까지 이문제를 매듭지은뒤 89년부터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심의기구의 구성원은 학계 언론계인사와 공무원등 50여명 안팎에서 위촉되며 선진국의 의약분업의료전달체계및 한방의보등 포괄적 의료제도를 심의、새로운 제도를 수립하게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우선 의약분업을 위해 처방용 (치료용)의 약품과 일반의약품 (매약)으로 약품을 구분해 현재 단일제 의약품 7천3백37개품목에 대해 분류를 끝내는등 늦어도 내년말까지 약품분류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는 처방전발급이 의무화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약을 조제판매하게 된다.

이 심의기구는 또 약국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긴급투약、약사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치료제의 판매 범위등을 규정하게 된다.

〈1면에서 계속〉

▲여덟째=恒常 미흡함을 느끼는 各級分事務所의 行政能力을 向上 시키는데 最善을 다할 生覺입니다。協會本部는 制度的 補完을、各級分所는 自體能力 發展에 能動的으로 배워서 일한다는 자세를 갖고、행정업무를 직접 다루워 보도록 힘써야 겠읍니다。

人事發令

〈免〉

▲경남 진해시 사무소장 =강신웅(사망)

▲충남 아산군 사무소장 =윤복영(사망)

謹賀新年
丁卯年 元旦
協會本部 任職員 一同

自然生採取 (연재)

호=胡 전=(前

○과 명=미나리과
○속 명=바디나물
○약용부=줄기와 잎 뿌리

1、기본…전국 산야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식목이다。

2、생장적지…산과들 개천주변 햇볕이 잘드는 습기 많은 곳이적지이다。

3、특징…키가 1m 50cm 정도 자라고 잎은 날개 모양으로 갈라지고 잎가장자리는 톱니같고 꽃은 가을에 자흑색의 작은꽃이 무리를 이루어 피고 뿌리는 향기로운 향기가 있다。

4、채종…9~10월경에 익은 씨앗을 채집한다。야생포기에서 분주도 한다。

5、파종…4월 중순경 파종한다。

6、채취…10~11월경 잎과 줄기가 마를무렵에 풀 전체와 뿌리를 채취한다。

7、조제…캐낸 뿌리를 즉시 물에 씻고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충분히 건조한 것으로 내부가 담황색을 이루고 향기가 질은것은 품질이 좋은 것이다。

8、이용…줄기와 잎을 약제로 쓴다。해열제、거담제、진해、진통、감기、두통、백일해、해외수출품。

접골목=(接骨木)

○과 명=고추나무과
○속 명=말오줌나무
○약용부=꽃、가지、잎

1、기본…산과 들에 자생하는 낙엽송 저목이다。옛부터 닭의 질병에 신기하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닭장옆에 많이 심었다。

2、생장적지…산과들 어디나 잘 자란다。

3、특징…높이가 3~5m 정도로 자라는 생장이 빠른 낙엽성저목으로 가지는 부드러우며 짜르면 갈색의 속이 있다。잎은 서로마주보며 붙고 가늘고 긴 타원형으로 선단이 뾰쪽하고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이다。봄에 제일먼저 잎이 나오는 식물로 4~5월에 걸쳐서 가지끝에 녹색기미가 약간 낀 하얗고 작은 꽃이 무리를 이루어 핀다。7~8월경 붉게 익은 약간 가늘고 긴 열매가 맺는다。

4、채종…성숙한 과실에서 씨앗을 채집한다。

5、파종…4월경에 씨앗을 파종한다。

6、채취…4~5월경에 채집하고 9월경에는 가지와 잎을 채집한다。

7、조제…①채집한 꽃은 깨끗이 햇볕에 말리고 ②채집한 가지는 잎을 말끔히 따서 가지는 1cm 정도로 둥글게 잘라서 햇볕에 말리어 약제로 쓴다。

8、이용…줄기나 가지 잎은 욕료로 하고 전액은 타박상에 습포용으로 사용한다。꽃은 발한제로서 내복약으로 쓴다。